

HIFU 장비·비만치료기기 등 국산화 앞장

피부미용 의료기기 패러다임 선도 앞장 ... 2016년 매출 1,000억 원 목표

2013년 코넥스(KONEX)에 이어 2014년 코스닥(KOSDAQ) 상장에 이르는 가파른 성장세로 2016년 매출 1,000억 원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실천하는 국내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하이로닉'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글_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2008년 1월 설립한 '하이로닉' (대표이사 이진우)은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집속초음파치료) 리프팅기기 및 냉각지방분해기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설립 1년 만에 기존 수입의료기기를 대체할 국산 리프팅 장비 'New MIDAS'를 개발한 하이로닉은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HIFU 리프팅기기 ▲냉각지방분해기 ▲IPL(Intense Pulsed Light) 피부질환 치료기기 ▲비절개 모발이식기기를 연이어 선보이며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시장에서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2013년 6월 코넥스(KONEX)에 이어 2014년 12월 코스닥(KOSDAQ)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특히 제품 안전성·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품질규격기준 ISO9001·ISO13485·GMP 등을 획득하고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인증과 수출유망 중소기업에도 선정된 이 회사는 2010년부터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제품 개발에 반영해 피부미용 의료기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하이로닉은 2016년 매출 1000억 원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실천하고 있다.



품질·기술력이 곧 제품 경쟁력... 차세대 일류상품 선정

하이로닉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피부미용 의료기기가 차세대 일류상품에 선정되는 등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 차세대 일류상품에 선정된 비만치료기기 '미쿨' (MICOOL) 시리즈는 '냉각지방분해술' (Cryo Fat Reduction)을 기반으로 두터운 피하지방층에 고유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냉각에너지가 지방세포의 사멸과정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시술 후 1주~12주까지 지속적인 지방세포사멸이 진행돼 시술 부위 지방층 감소가 일어나고, 지방세포사멸과정이 가속화되는 2주 경과시점부터는 줄어든 지방층 두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취가 필요 없고, 시술 후 후유증과 다운타임(Downtime)이 없는 것도 큰 장점.

강하게 집적된 초음파 에너지(HIFU)를 이용한 피부 리프팅기기 '더블로' (DOUBLO) 시리즈 또한 2011년 차세

대 일류상품에 선정돼 독자적인 하이로닉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피부 표면 아래 3~4.5mm 깊이까지 열에너지를 전달해 절개하지 않고 피부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더블로 시리즈는 초음파 이미지 센싱장치를 제거해 가격적인 부담을 낮춘 보급형 ‘더블로S’ (Doublo-S)와 산부인과용 ‘더블로V’ (Doublo-V)가 있다. 이중 30만 회 이상 안면 리프팅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기존 더블로와 동일한 HIFU 기술을 적용한 여성용 더블로V는 기존 레이저나 기타 수술과 달리 외상·통증이 거의 없다.

더블어 약 20분의 짧은 시술과 함께 별도 회복기간이 없이 시술 직후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미라클리어’ (MIRACLEAR)는 3세대 흡입형 IPL 피부질환 치료기기로 ▲압출(Vacuum) ▲원인균 살균(Blue Light·410nm) ▲피지선 진정(IPL) 등 세 가지 복합 에너지를 세계 최초로 활용한 제품.

이 제품은 통증이 적고 약 10분에서 15분이 걸리는 짧은 1회 시술시간과 적은 치료 횟수는 물론 다양한 피부 트러블 환자 치료가 가능하고 개인용(교체용) 핸드피스 흡입 Tip 사용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지모’ (easymo)는 기존 HIFU·냉각지방분해술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비절개식 모발이식 기술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비절개 모발이식장비 이지모는 모발추출·이식을 외과적 수술이 아닌 시술로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장비로 기존 유전적 요인 이외에 스트레스 증가·면역결핍 등으로 급속하게 성장 중인 탈모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고가 외산장비 단점을 보완한 국산 모발이식장비 세계 최초로 2개 추출장치 또는 2개 이식 장치가 장착돼 신속한 시술이 가능하고 냉각모돌장치 탑재로 추출한 모근 손상을 최소화해 생착률을 높였다.

이밖에 모낭카운터 기능을 탑재해 경쟁 제품에 비해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시 통증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모발이식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국산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 세계시장 공략

하이로닉은 일찍이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동남아·서남아시아를 비롯한 중국·일본·유럽 등 다양한 해외지역에 판로를 확보했다. 이 결과 2011년 300만 불에 이어 2014년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가파른 해외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하이로닉은 한류(韓流) 열풍과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국시장 개척에 나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하이로닉은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15 광저우 국제미용박람회’ (Canton Beauty Fair)에서 여성용 HIFU 장비 ‘더블로V’와 에스테틱용 신제품 ‘더블로M’을 선보였다.

이중 더블로V는 기존 여성용 레이저 제품보다 안전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난 장점을 인정받아 박람회 현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이로닉은 박람회를 통해 중국과 수출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영국, 스페인, 터키,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관심을 보여 수출계약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 대리점 계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물론 해외 미개척시장에서도 기술력이 통한다는 자신감을 얻은 하이로닉이 ‘Made In Korea’ 의료기기로 전 세계시장을 공략할 그날을 기대해본다.



▲ 하이로닉-더블로V



▲ 하이로닉-미라클리어(MIRACLEAR)



▲ 하이로닉-미클S



▲ 하이로닉-이지모